



지면안내

보도  
수강신청 강제 로그아웃으로  
4학년 학생들 '당황' 02

사회  
교묘한 판매에  
소비자는 몰상 03

사람사  
"반짝 스타피디보다 오래  
기억되는 피디 되고  
싶다" 05

학술  
연재기획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식의 부재 06

문화  
모진 살 속에서 '민들레'로  
살아가는 서예가, 靑峰(청봉)  
이흥근을 만나다. 07



##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성황리에 마쳐

지난 2월 24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낙산관은 학사복을 입은 졸업생들과 졸업 축하하는 귀빈들로 가득했다. 졸업생들의 환한 미소와 손에 들린 화사한 꽃다발이 더 큰 사회로 나아가는 그들의 설렘과 기쁨을 대신 전해주는 듯 했다. 이날 박사 22명, 석사 236명, 학부 1,212

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73명으로 총 1,54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새로 선임된 이종훈 이사장은 이날 "4년의 노력 끝에 무사히 우리 한성대학을 졸업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낙산언덕을 떠나 사회라는 큰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길을 가보며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바다 너

머 목표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고 전했다. 이어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듯이 여러 분들의 길을 가로막는 거친 파도가 있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대학원에서 ▲최우수 논문상 9명 ▲특별공로상 2명 ▲성적우수

상 26명 ▲공로상 21명 ▲대학원 총동문회 상 2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총장상 23명 ▲학과추천공로상 77명 ▲특별공로상 7명 ▲동문회장상 1명이 수상했고, 학사학위과정에서는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상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우촌상을 수상한

김의령(정시 4) 졸업생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큰 상으로 마무리해서 기쁘다. 그동안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현재 재학중인 친구들과 후배들도 한성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자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발행일정

발행호	발행일
499호(개강호)	3월 2일 월요일
500호(창간특집호)	3월 16일 월요일
501호	3월 30일 월요일
502호	4월 13일 월요일
503호	5월 18일 월요일
504호	6월 1일 월요일

### 본교 학교법인 한성학원 제 15대 이종훈 이사장 선임



- 1959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79 도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77 국방대학교 조교수
- 1985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
- 1989 일본 도쿄대 객원교수
- 1994 제 24대 한국경제학회 회장
- 1997 제 10대 중앙대 총장
- 1999.11 경실련 대표
- 2005.112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 2015.02~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지난 2월 12일 본교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종훈 이사를 제 1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종훈 선임 이사장은 중앙대 경제학사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제

10대 중앙대 총장과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에서 한성학원 제 26대 이종훈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한자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2015년도 등록금 동결돼

### 4년제 사립대학 대부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지난 1월 16일에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201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최종 결정했다. 1차 등심위에서 학생대표 측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고 대학본부는 물가상승률 고려, 신입생 정원 및 대학 자체 예산규모의 감축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1월 16일까지 진행된 두 번의 등심위심의위원회와 세 차례 진행된 등록금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201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당시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동결 이외에도 등록금 분할납부 횡수 확대, 장학금 추가 확보, 학생행사 지원비 확보를 결정하고 장학기금 인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을 제시했던 이유에 대해 조윤철(기획협력팀) 팀장은 "전년도 추정 결산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고, 각 부서와 학과에서 2015년에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안을 접수해 산출해 보니 57억 정도의 지출이 초과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수

입대비 지출이 57억 정도 지출이 초과되지 아무리 예산을 줄여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 이유를 묻자 조팀장은 "본교 등록금을 1% 인상하면 대략 5억 정도 수입이 증가한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인 2.4% 인상해도 지출 초과분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판단했다"며 "그렇기에 예산을 재검토해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성 수당을 과감하게 줄여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 불황속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예산을 채우려는 생각대신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인건비성 수당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도리이고, 학교가 사회에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본교와 같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올해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

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등록금 인하 여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현재 등록금을 인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등 국고지원과 연계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학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해 수입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교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해왔고 올해 특수대학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만 10만원 인상했다. 본교 대학원 관계자는 "석사과정에서 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50%를 면학장학금으로 지원해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교 등록금은 2014년도에는 0.5% 인하, 2013년도에는 0.2% 인하된 바 있다. 한자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동정란

조규태(역사문화학부) 교수  
조 교수는 지난 1월 1일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새코너 소개

정치를 엿보다  
어려운 정치를 대학생의 시선에서 통쾌하게 풀어낸 정치칼럼코너

이주 사적인 시간  
기자의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

이제 만나려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상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하는 코너

비정상연구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연구를 소개하는 코너

美生:여결들의 이야기  
남자들에게 가려진 여자들의 빛나는 업적과 생애에 대한 역사칼럼코너

Gamesave  
게임, 그리고 청춘에 대한 게임칼럼코너

BACKSTAGE  
연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연극을 소개하는 코너

# 핵심교양B가 또?! 수강신청 이후 또 다시 논란일어나

수강신청이 끝난 뒤 역시나 핵심교양B(이하 핵B)를 두고 불만이 제기되었다. 수강신청이 적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핵B는 본교 졸업 요건으로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초교양교육과정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모든 학생들은 핵B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신청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수강신청에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다. 바로 핵B 교육과정이 개편된 것이다. 예전에 일반교양이었던 과목이 핵B가 되고 단과대학 과목 구분이 폐지된 것이다. 게다가 4학년 주간 학생들의 수강신청 전산 오류로 졸업을 앞둔 그들은 이번 수강신청 성패여부를 두고 졸업과 초과학기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본지가 핵B의 문제점을 취재한 것은 수강신청 이후 통과여부와도 같았다. 그만큼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핵B. 본교는 지난해 2학기 본지 492호 '핵심교양 B 그것이 알고싶다' 기사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교육과정이 개편된 만큼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논란중인 핵B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귀옥(교양교육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전히 논란의 핵B, 고질적인 원인은?**  
이전의 핵B는 총 6학점(3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중 자과대학 핵B 과목 2학점(1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한 단과대학 핵B 과목의 경우 자과대학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핵B 수강신청이 적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김귀옥 교수는 "이전 수강신청 데이터들을 분석해본 결과 수강신청이 부족해, 즉 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특정 시간대와 특정 과목의 편중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과대학 핵B는 수강신청이 남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예술대학 핵B는 경쟁이 치열해 자과대학 학생들이 필수학점을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주간야간 소속을 불문하고 야간 수업보다는 주간 수업을 선호하다보니 핵B 수강신청에서 불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개편되었나?**  
본교는 이러한 핵심교양B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김귀옥 교수는 "이번 핵B 교육과정 개편은 특정과목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제한을 폐지하고 6개 영역(C·E·N·T·E·R형) 내에서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 6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 한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개편한 결과 지난해 28개였던 강좌수는 32개로 늘었다. "더불어 최대 정원을 늘려 핵B 수강신청이 늘어나 김교수는 이전보다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핵B 교육과정은 재학생, 신입생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재학생의 경우 2014년도 이전에 이수한 핵B는 영역불문하고 핵B로 인정하고, 2015학년도 이후에 이수할 핵B는 각 영역에서 한 과목만 인정된다. 만약 2014년도 이전에 이수한 핵B가 2015학년도 개편된 교육과정에 소속되어 있다면 나머지 핵B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수한 과목이 소속된 영역을 이외의 영역에서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핵B

였으나 일반교양으로 변경된 과목은 일반교양으로 재수강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교양으로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이 핵심교양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목을 핵심교양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올해 핵B 문제는 따로 있어**  
이번 수강신청에서 핵B 개편 사실은 4학년 수강신청 바로 하루 전 2월 10일 오후 4시에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로 올라왔다. 수강신청 안내 책자와 파일에 위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기에는 공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4학년 주간 학생들의 경우 수강신청 전산 오류로 겹쳐 핵심교양B를 두고 다발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에 김귀옥 교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수강신청 데이터를 파악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조정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4학년 졸업예정자가 가장 우선으로 핵심교양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2015학년도 입학식에서 1,664명의 한성가족을 맞이하다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낙산관 대강당은 상기된 뽕의 새내기들과 15학번 새내기를 환영하는 귀빈들로 가득했다.

이날 인문대학 331명, 사회과학대학 480명, 예술대학 374명, 공과대학 479명으로 총 1,664명이 입학했다.

강신일 총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인 대학생활을 한성대학교에서 좋은 친구와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해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길 바란다"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신일 총장 축하 이후 신입생들의 선서식이 진행되었다. 신입생 대

표로 선서를 한 권민지(행정 1) 학생은 "신입생 대표로 서게 되어 떨리는 한편 뿌듯했다. 수험시절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한성대에서 시작하게 되어 설레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수강신청 강제 로그아웃으로 4학년 학생들 '당황'

## 수강신청 전산 오류 이후 학교의 묵묵부답으로 학생들 두 번 울려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정각을 알리는 시계와 함께 움직임이 시작된 4학년 주간 학생들의 거침없는 마우스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모니터에는 '중복로그인으로 로그아웃됩니다'는 경고문이 뜨며 4학년 학생들을 강제 로그아웃시켰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은 다시 로그인해야 했다. 10시 정각이 지나고 몇 분이 흐른 뒤 제대로 로그인 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졸업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핵심교양 B는 이미 수강신청이 다 차신정 마감된 것이다.

한 번도 수강신청을 실패한 적이 없다는 A학생은 "강제로 로그아웃되는 순간 나의 멘탈까지도 로그아웃 당했다"며 "덕분에 수강신청을 실패해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수강신청 이후 낙산의 메아리는 위와 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은 학생들의 불만이 여러 건 올라왔다.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종혁(정통 졸) 전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불가 통보를 받았고 "2014년 총학생회장으로서 한 해를 보내며 학우분들께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매년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죄송하단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며 낙산의 메아리에 유감을 표했다.

수강신청 전산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현태(학사지원팀) 과장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위 인터뷰는 1차 정정기간이 끝난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김현태 과장은 "꽤 학기 교육과정 개편 및 규정개정으로 수강신청 시스템이 복잡해져 시스템 도입에 있어 서버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었다"며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시스템 점검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접속자 수에 대한 과

부하 상황 테스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서버 과부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학년 주간학생들의 수강신청 전산 오류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부하 방지 시스템의 동시접속 세션수를 조정했다. 그 결과 4학년 야간 학생들부터 1학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기까지 전산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이번 오류 사태 역시 예방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수강신청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김 과장은 "학년별 수강신청 완료 후 핵심교양A·B와 일반교양과목에 대해서 학부·학과와의 협의하여 2월 16일 1차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늘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도 수

강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전여 인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2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과장은 "항우 웹서버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서버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및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수강신청 전산 오류 사태는 핵심교양B 교육과정개편 공지가 늦었다는 점과 맞물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했다.

학생들이 혼란 속에서 낙산의 메아리를 울리고 졸업은 며칠 앞둔 총학생회장 역시 마지막까지 학교 측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2차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3월 2일 월요일 오늘이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한성, 감정의 획을 그어라' 제1회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

최근 유행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바로 캘리그래피다. 캘리그래피는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고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움 개성있는 글자체를 뜻한다.

곧이어 한성대신문이 창간 500호를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성대신문사는 (제1회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한재원(편집국장)

은 "한성인의 감성이 담긴 <한성대신문> 제호를 받아 창간 500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공모전은 '한성대신문' 다섯 글자의 캘리그래피를 완성한 뒤 작품을 3월 10일 밤 12시까지 촬영 혹은 스캔을 해 응모양식과 함께 기사 하단에 첨부된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응모양식은 한성공지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6일 발간되는 본지 500호에 발표되며 대상(1명)은 상금 10만 원, 최우수작(2명)은 문화상품권 5만 원, 가작(5명)은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시상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예쁜 손글씨로 유명하거나 평소 캘리그래피를 즐겨 그리는 학생이라면 한 번 공모전에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한다.

최혜정 기자 hipo96@hansung.ac.kr

# 2015학년도 1학기 학사협의회 열려

지난 2월 25일 본교 미래관 DLC에서 2015학년도 1학기 학사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롭게 선임된 이종훈 이사장과 강신일 총장을 비롯하여 교수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등록, 이사장 인사말씀, 총장 인사말씀, 우수교원 포상, 신입교원 소개, 부처별 업무보고, 강연 '대학의 미래와 리더 혁신(성균관대 인문대학 홍성호 교수), 강연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면담(조난숙 교수), 중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 학군사관(ROTC) 56·57기 모집안내

2015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6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7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학년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4일(토) / 발표 : 4월 24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월 27일(월) ~ 5월 22일(금) / 발표 : 6월 12일(금)
- 신원조회 : 6월 15일(월) ~ 8월 14일(금)
- 최종합격 : 8월 20일(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9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ROTC

# 교묘한 판매에 소비자는 울상

연극, 영화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줄게. 2만 원만 내면...



“고객님 이런 기회 없어요. 저도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고객님이 제 값주고 연극보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리에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로에 있는 모든 연극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기한 후 카드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종이는 일종의 계약서이며 현장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현장 환불이란 카드를 구매한 날 구매한 장소에서 환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적으면 현장 환불은 불가능하다.

### 혹한 마음에 구매한 김씨

김씨는 대학로에서 A회사 판매원에 의해 약 2만 원 상당의 문화혜택카드를 구매했다. 구매계획이 없었지만 다양한 연극과 영화가 할인되고 시사화에 참석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당하게 된 것이다. 판매원은 현금이 없어 구매를 망설이는 김씨를 ATM기 앞까지 데리고 간 후 현금을 받고 돌아갔다.

이후 김씨는 카드를 사용하고자 했지만 할인받을 수 있는 영화관과 연극은 한정적이었다. 서울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연극은 11개, 영화관은 6 곳이다. 이에 김씨는 A회사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회사 직원은 유학, 군 입대 등과 같은 특정한 사유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판매원은 김씨에게 혜택에 대해 부풀려 설명하여 김씨가 올바른 거래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김씨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거래였음에도 정확한 사유가 없으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약 2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김씨가 A회사에게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 기자는 직접 문화혜택카드를 판매하는 여러 회사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회사의 인터뷰 거절로 회사 운영 방침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

### 보상받기는 힘들어

그렇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법무법인 율산 유정훈 변호사는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관행상 인정되는 추상적인 과장광고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A회사가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므로 14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하여 환불받을 수 있지만 A회사가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를 갖추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A회사의 환불 불가 약정 역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비자 스스로가 계약서의 혜택,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극단 측의 시선 역시 굵지 않아

극단관계자 박씨는 A회사와 같은 업체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지만 티켓판매를 하지 않으며 극단에게 무리한 할인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평일 잔여 좌석의 경우 극단은 해당업체를 통해 적게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박씨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문제의식을 느껴 제휴를 등록하지 않았다. 박씨는 “강매 아닌 강매로 인해 관객분들이

매원의 말처럼 무제한으로 영화할인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 한 편 당 4,000원의 할인을 한 달에 3회씩 총 36회 받을 수 있다. 안씨는 영화와 관련된 할인혜택만 누렸을 뿐 연극 할인혜택은 누리지 못했다. 판매원의 말과 다르게 대학로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연극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 증가하는 피해, 저조한 신고건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는 2014년을 기준으로 11건이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피해에 비해 신고건수는 턱없이 적은 상태이다. 피해액이 작아 피해를 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업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가 될 여지는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피해자들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A회사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소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연극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며 곤란하다고 말했다.

A회사와 같은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다면 소극장 협회와 연극 협회는 해당업체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두 협회 모두 문화할인카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소극장협회 담당자는 “연극이나 극장이 특정회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므로 소극장협회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해당업체를 잘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심지어 안씨는 교내에서 B회사의 문화할인카드를 구매했다. 개강 이후 교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안씨는 집 근처에 할인받을 수 있는 영화관이 위치해 있어 영화 위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판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다면 묵인하지 말고 소비자원에 연락해야 한다.

A회사와 같은 업체의 연극 할인율은 큰 편이지만 일반 예매처의 할인율과 크게 차이는 없다. 또한 할인받을 수 있는 연극이 적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영화의 경우 할인 금액이 크지만 할인받을 수 있는 영화관이 적다. 또한 제한된 횟수를 넘기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극단에게 무리한 할인율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게는 부풀린 장점만을 말하는 이러한 중간업체의 행태가 대중으로 하여금 연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ac.kr

## 정치란 무엇인가

### 정치란 안녕을 만들어가는 것

20대, 기성세대에 의해 위로할 대상이었다가 한순간에 20대 개새끼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존재

한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1종 보통, 2종 보통, 소형면허증도 딸 수 있고, 8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도 될 수 있으며, 군대도 갈 수 있고, 취업자의 경우엔 세금도 내야 한다. 병역의 의무, 세금납부의 의무도 지고, 국가 공무원까지 될 수 있는 만18세 청소년들이 누리

### 정치란 안녕을 만들어가는 것

기성세대를 욕할 필요는 없다. 기성세대는 청춘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젊음을 질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이 쏟아내는 20대에 대한 경탄과 경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벽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연장을 가지고 이 벽을 조금씩 끊어내 허물 것인가'를 고민하는게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성세대들이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할 때, 천 번이 아닌 천만번 흔들려야 바꿀 수 없는 사회적 모순'들을 천번의 부딪힘을 통해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로는 답을 수 없는 2014년의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노동, 커뮤니케이션, 대안경제, 주거, 정치, 공간 할 것을 강요받던 존재들이 갑자기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다 2013년 겨울과 2014년 초, 한국 사회를 강타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역시 20대'

라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20대 찬양론을 늘어놓기 바쁘다. 박권일 <88만원 세대> 공저자가 이야기 한 바 있듯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20대 개새끼론과 20대 영웅론 사이에서 널뛰기를 당하느라 대한민국의 20대들은 무척 어지럽다. '우린 누구, 여긴 어디?'

### 정치란 연결되는 것, 관계맺는 것

소셜미디어, 소셜커머스 등 소셜(social)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사회적'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해 사전을 뒤져보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온다. '사회적[社會的] :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계된, 또는 그러한 것과 같은 성격을 띤. - 한국어 위키백과'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social'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지음, 연결됨'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고,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 걸까? 앞으로 연재할 네 번의 글에서는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인 지 않은 것, 사회적인 것과 사회적이지 않은 것' 사이에 난 조그만 오솔길을 걸어가며 때론 회의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걸어가고 싶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을 다잡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연장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진 벽을 끊어가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이다. 그리고 자기와 동일하게 그 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자기 옆의 친구를 발견함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정치란 연결되는 것, 관계맺는 것

정치란 연결되는 것, 관계맺는 것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

## 학술정보관에서 알려드리는 무료 원문복사서비스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이용 방법 -

### ✓ 서비스 개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외국학술지의 대학별 중복 구독을 배제하고, 외국학술정보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공동활용하는 인프라를 조성하자'는 취지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원문복사 서비스를 진행

###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 강원대학교 생명공학분야(1,562종 논문 243 만편)
-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분야(6,539종 논문 106 만편)
- 경상대학교 환경에너지분야(341종 논문 50 만편)
- 고려대학교 인문학분야(1,895종 논문 89 만편)
- 부산대학교 기술과학분야(16,505종 논문 155 만편)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분야(2,443종 논문 408 만편)
- 연세대학교 임상의학분야(467종 논문 254 만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역체제분야 (2,298종 논문 110 만편)
- 전북대학교 농축산학분야(642종 논문 83 만편)
- 충남대학교 행정경영학분야(1,363종 논문 49 만편)

### ✓ 대상 : 교수, 강사, 대학원생 및 학부생

### ✓ 담당 : 정미영 (구내 ☎5668)

### ✓ 신청 방법

- ①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My Library] → [원문복사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 ② RISS or NDSL에서 신청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타기관자료검색] → [RISS or NDSL] 로그인 → 자료검색 → 복사신청
- ③ E-mail/Fax 신청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ric.kr) → 학술지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를 E-mail/Fax로 전송
- ④ 인터넷으로 신청  
[교내 인트라넷] → 원하는 논문의 서지사항 입력 → 편지쓰기(수신자: 정미영)

### ✓ 자료 수령 방법 : 학술정보관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원문 제공



# 한성대학교 ROTC 학군사관후보생의 의미



교단에서

민달준 중령  
(한성대 196 학군단)

2014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휴가분한 마음도 잠시, 한성대학교 ROTC 학군단은 동계 기초군사훈련과 임영훈련 준비에 더욱 분주해집니다. 하나! 둘! 구령 소리에 맞추어 체조를 하고, 코끝까지 시러오는 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체력단련에 매진하여 누구보다도 강한 학군사관후보생이 되기 위해 그렇게 겨울을 시작합니다.

학군사관후보생이 정식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여름 방학 동안 4주간의 임영훈련 2회, 겨울 방학 기간 중 2주간의 임영훈련 2회를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전공과목 수업과 더불어 군사학 수업을 통하여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전기전술과 리더십 습득하고 체력단련, 태권도 등을 실시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험난한 길을 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국가방위에 기여하는 소임을 다한 후 민주시민이자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대학교 ROTC 학군사관후보생들은 울겨울에도 어김없이 동계 기초군사훈련과 임영훈련을 실시하였고, 모두 성공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수료했습니다. 2013학년도 ROTC 55기 신입 후보생들은 2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동안 처음 군복을 착용하고 사격 훈련, 제식훈련, 20km 행군, 체력측정,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군대라는 곳에서 자신의 집지리와 침대는 자신이 정리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깨달았으며, 맛있게 먹는 음식과 훈련간 사용한 소총 및 각종 장구류들이 부모님들께서 피땀 흘려 일하신 세금으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학군단의 명칭이 되는 한성대학교 ROTC 54기 후보생들은 더욱 심오하고 다양한 동계훈련에 임했습니다. K-2소총과 K-201사격, 제식훈련, 40km 행군, 화생방 훈련, 판제화기, 체력측정,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한층 성숙한 장교후보생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화생방 훈련은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훈련 등을 직접 실시하며 점차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가스실 실습은 고농도의 실제 가스가 구성된 교장에서의 훈련으로 화생방전의 간접 체험과 방독면 사용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40km 행군은 10시간여 동안 전술적 이동, 대형 유지 등을

통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더하여 소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의 ROTC 과정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서 한성대학교 학군단을 우수 학군단으로 육성하고, 졸업에 이어 오는 3월 12일 대통령님 주관하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2011학년도 ROTC 53기 졸업생에게도 큰 격려와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한성대학교 ROTC 학군사관후보생의 겨울은 활기찼고 또한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2015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의 부모도 당당한 자세와 눈빛, 그리고 건전한 사고는 우리 한성대학교를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이며, 이 모습을 보고 3월 한달 동안 실시하는 ROTC 56기와 57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에 많은 한성인들이 지원하여 자랑스러운 대열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방위와 더불어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 성장하고자 신득(慎獨)의 자세를 견지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늘 따스하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 · 사 설 ·

### 2015년 1학기 개강을 맞아

요사이 TV의 프로그램 중에는 연예인들이 군대의 병영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내가 '광주보병학교'에서 받았던 사격·화생방·유격 등의 훈련이 회상되기도 하지만, 초봄 일요일에 내장산에 가서 보았던 신록의 향연이 떠오른다. 청록색, 초록색, 연녹색, 연두색 등 다양한 녹색 계통의 새싹들이 활기로운 냄새를 담은 고운 빛깔로 자신을 한껏 뽐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최근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을 보고, 나는 30년 전 그 때의 장면이 다시 생각났다. 대학 초년생으로서의 청순함과 미숙함이 드러나지만, 신입생 개개인의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성을 슬며시 보여주고 있었다. 초봄에 유사한 신록의 나뭇잎들이 가을에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변화듯이, 이번 신입생들도 각자가 지닌 특색과 장점을 키워 영재와 준재로 발전하리라 예상해보았다.

작년부터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역량개발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대폭 정비하였다. 현재 학습법 교육, 튜터링과 멘토링, 학습소모임 지원, 현장 답사,

특강, 교육훈련금 지원, 특성과 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공명불에 불과하다.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교수들이 관심을 갖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역량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토요일에도 도서관에 나와 앉을 자리가 부족하고, 특강과 문화교실에 참석자가 넘쳐나길 기대해본다. 그러면서도 교내의 해외봉사나 프런티어십 프로그램, 교외의 해외답사 등의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소망해본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고, 또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지 않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노력해보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으로 웃을 수 있었던 한 독립운동가의 '而笑(이소, 그러나 나는 웃는다)'라는 자호가 다시금 생각난다.

### 갑갑하니 숨 막힐 수밖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29살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2pt 오른 9.2%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실업률 10.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가었던 2009년 실업률 8.1%보다도 높다. 구직단념자는 49만 2,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 두고 정부는 월레브리핑에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대출액이 2010년 3조 7천억 원에서 2014년 10조 7천억 원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두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 4년 만인 올해 완성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겨울 한파보다 매서운 현실 속에서 최근에는 '열정페이'라는 말이 청춘들의 가슴을 후린다. 열정페이란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호는 말이다. 취업을 절박하게 원하는 취업생의 열정을 재물로 삼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갑(갑)'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

게 청춘의 열정은 이력서의 한 줄로 환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해 구직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로부터 이른바 '최씨 아저씨'로 불리며 '협박 대자보'를 받았다.

우리는 갑으로 둘러싸인 사회 속에서 철저히 울로서 성장해왔다. '뺨을 때는 사서 고생하는 거야, '어차피 스펀 한 줄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 '다 경험이지' 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숨 막힐 수밖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더 이상 힐링할 수 없다. 애초에 힐링이라는 단어도 치유라는 뜻이 아픔을 스스로 견뎌야 할 우리는 모두 병을 가진 환자였나 보다.

'더 큰 꿈을 가져라'라는 말로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다. 꿈을 꾸라고 해놓고 그 꿈을 착취하니 꿈을 갖고 도전해야 할 우리는 모두 저비용·고효율의 노동력이었나 보다.

착잡한 현실 속에서 청춘은 갑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었다. 이렇게 갑갑하니 숨 막힐 수밖에.

#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지만 큰 목소리



기자수첩

노유진 기자  
(경명 2)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활인카드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 들어와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대학이 낯선 신입생의 피해가 예상된다. 심지어 환불이 쉽지 않아 학우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사회면을 담당하기도 언 7개월이 넘었다고 있다. 사회부 기자로 그동안 6호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번 호처럼 취재가 어려웠던 적도 없었다. 문화활인카드 구매 피해에 대한 기사를 다룬 이유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들이 많아 그들을 대변하기 위함이였다. 피해사례는 많았지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터뷰해 줄 취재원이 필요했다. 문화활인카드 판매업체들은 바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고 협회들도

해당 업체에 대해 알지 못해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소비자원에 연락하러도 번번이 거절하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법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평소 6명의 취재원을 만나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다. 최대한 많은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동료 기자까지 동분서주했다. 다행히 법무법인 율산의 유정훈 변호사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학우들의 피해사례를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사회면에서 약 60여 명의 취재원을 만나면서 개인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496호에서 만난 민달팽이 유니온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들에 의해 많은 언론과 정부는 청년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문제해결에 힘쓰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목소리를 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성대 신문에 필요한 것은 학우들의 목소리이다. 보고 싶은 기사나 기자들이 다뤄주지 않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문사에 찾아와 직접 물어봐도 된다. 한성대 신문사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학우들에게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지난 한성대 신문을 돌아보며



독자칼럼

박소영  
(경명 4)

안녕하세요. 한성대 신문사 독자위원 경영학부 12학년 박소영입니다. 우선 비쁜 학기 중에도 한성대 학생들을 위해서 신문 발행에 힘쓰는 한성대 신문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 2학기 동안 발행된 신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15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한성대 신문사의 개강 호 발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2학기의 개강 호였던 492호는 1면의 백지 기사가 다른 어떤 기사보다도 인상 깊었던 호였습니다. 한성대 신문사 기자들이 학교의 작은 신문사 기자들이지만 언론인으로서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소식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학교내부 기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대표들과 그들이 속한 기구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니다. 하지만 493호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 많은 것들

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94호는 이전에 발행된 신문들에 비해 굵직한 기사들도 많고 정보성이 가장 뛰어난 호였던 것 같습니다. 총장과의 인터뷰 기사와 3면 전면을 차지한 대학구조개혁을 심도 있게 다룬 기사 그리고 교내취업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한성대 학생으로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타 학교의 대학생활협동조합 시행에 관한 기사를 읽고 학생복지의 새로운 측면을 접하게 되어 신선했습니다.

앞서 발행된 494호에서 다루었던 대학구조개혁기사에 이어 495호에서는 본교의 구조개혁 추진 발족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는데, 특히 본교 교내학생복지비율 등 한성대 학생들을 위한 본교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복지의 기본인 학생식당 이용률이 개선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품질이 학생들의 복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본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가야 할 점 같습니다.

마지막 호였던 496호에서는 본교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어려움에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교의 재무/회계 상태까지 정리해준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학생의 복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496호에서 다룬 대학생 주거문제에 관한 기사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의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부문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부문에 비해 실을 수 있는 기사 양이나 내용 측면에서 편차가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부문과 학술부문에서 다양성이 강조된 나머지 연재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성대 학생들의 한성대신문 구독율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연재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한성대신문이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 일방통행중인 낙산의 메아리



독자칼럼

이수빈  
(무역 2)

2월 11일, 한동안 조용하던 '낙산의 메아리'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바로 4학년 선배들의 수강신청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시간표가 한 학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30분 전부터 대기하고 긴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2학년이 되는 나조차도 손을 떨어가며 수강신청을 마쳤는데 졸업을 앞둔 선배들은 더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4학년의 수강신청 당일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자 중목 로그인이 되어 다시 로그인해야 했고 그 사이에 원하던 강의는 정원 초과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핵심교양B가 6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그중 3개의 영역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한다는 개편사항도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물어보려고 학사지원팀에 전화하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조건이니까 받아들이라는 등의 답변과 정보팀에 연결해 주겠다고 연결을 하면 다시 지원팀에 연결을 해주는 끝없는 피라미드 계속되었다. 만약 학교 측에서 개편 사항에 대해 공지를 정확히 해주고 진산 문제가 발생했다한들 학생들의 불만을 빨리 해결해주고 조치를 취했다면 학생들의 불만이 이정도로 폭주하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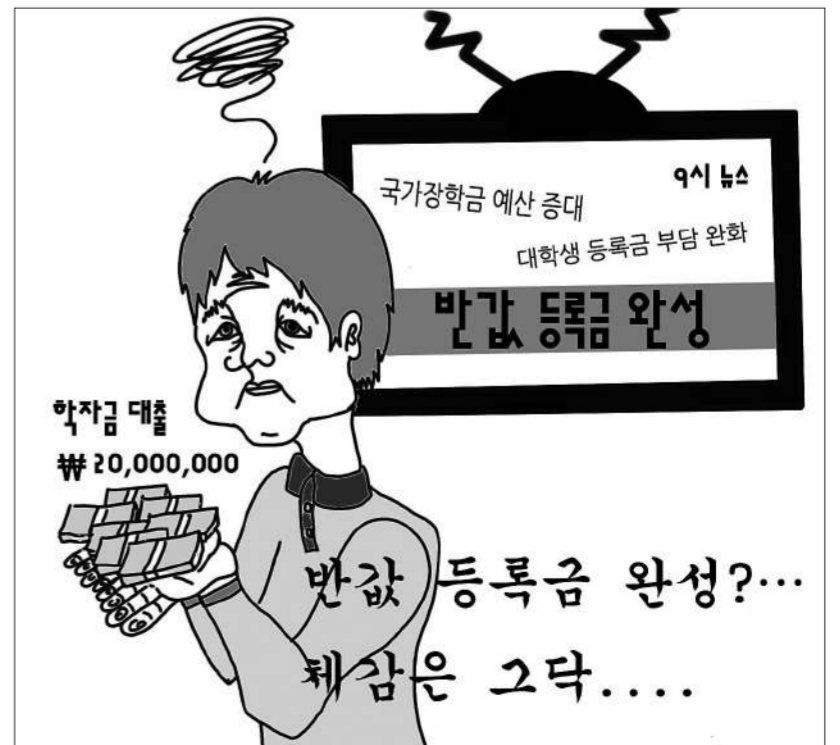
낙산의 메아리만 봐도 학생들의 불만은 넘쳐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정작 해결을 해줘야 할 학

교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학교생활을 하며 불편한 점, 궁금한 점, 정보 등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낙산의 메아리'가 학생들끼리만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소한의 피드백이 있어야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학교 측도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일방적으로 학생들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니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다.

학생들의 글에 일일이 답변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글을 올려주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소통이야말로 더욱 나은 학교생활을 만들어 줄 것이며 그 공간이 '낙산의 메아리'가 되었으면 한다.

# 낙산만평

한지선(패미 2)



# 아주 사적인 시간 오진석 피디를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반짝 스타피디보다 오래 기억되는 피디 되고 싶다”

삼고초려(三顧草廬). 기자가 오진석 피디를 만나기 위해 끈질기게 생각하여 세 번 이상 뵈기를 청한 것을 말한다. 지난 여름, 첫 연락 당시 본교 졸업생인 그와의 인터뷰는 드라마 제작으로 인해 이질하게 무산되었다. 올해 2월 두세 번 연락 끝에 드디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로맨스 장르인 '결혼의 여신'부터 독특한 웃음 코드의 청춘휴먼드라마 '모던파머'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출한 오진석 피디를 만나보자.

로 체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동시에 부과되니 조연출 초년기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연출하신 드라마 '모던파머'는 일반 주말 드라마와 다른 스타일 코믹 요소로 인해 '실함'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이러한 도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드라마 제작의 시작은 타의에 의해서였습니다. 방송국으로부터 주말 시간에 드라마를 준비하라는 보고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중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한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저예산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예산 드라마는 캐스팅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드라마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모던파머'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게 되었죠. 물론 새로운 장르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청춘이라는 소재 또한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타의에 의한 시작이었지만 자의로 이러한 독특한 장르의 드라마를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 피디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서사구조와 이야기를 만드는 등 창작을 좋아해서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가를 꿈꾸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작가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영화 감독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입문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가 있으면서 동시에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는 직업이 드라마 피디였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 입사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보통 언론고시를 합격해 방송국에 입사하면 7년간 조연출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감독이 되는 것이죠. 저는 공중파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조연출로서의 일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입사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드라마 야외촬영을 할 경우 연성을 높이며 행인들을 통제하는 것부터 드라마 편집과 예고편을 제작하는 것까지 매일 밤을 지새워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던져진 느낌이었기에 스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오진석 피디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요즘 케이블 방송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대중들이 케이블 방송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것은 과격적인 실험정신 때문이에요. 반면에 공중파 방송은 다소 안정지향적이라 생각합니다. 케이블 방송과 같은 모험적인 경향이 부족

하죠. 공중파 방송도 일정부분 케이블 방송처럼 실험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던파머'는 케이블 방송에서조차 시도되지 않았던 생코미디 장르였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도 케이블 방송 이상의 에너지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요즘 로맨티코미디, 사극 등 드라마 장르가 흔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장르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각각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선사하는 유쾌한 전개가 돋보였지만 시청률이 다소 아쉬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드라마 장르의 전략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드라마 방송 시간이 어렵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인 수목미니시리즈로 방송이 되었다면 시청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주말드라마는 전통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이 시청하는 시간으로 전형적인 가족드라마나 막장드라마가 편성됩니다. 그런데 '모던파머'는 기획 단계부터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제작한 드라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부터 굉장히 낯선 드라마를 모든 연령대가 보는 시간인 주말에 방영하니 불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연출자로서 과격적인 실험이었기 때문에 '모던파머'가 방영되는 시간이 주말이 아니었다면 정확한 실험데이터가 나왔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피디님이 연출하신 '결혼의 여신', '모던파머'는 소위 말하는 '막장'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막장드라마를 폄하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장드라마 시청률이 30~40%인데 과연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러한 저질드라마에 열광한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죠. 저는 막장요소가 저질이기 때문에 연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된다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성이 아주 강한 이른바 막장 드라마는 자유롭게 연출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강력한 대사와 강한 사건들이 스토리상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출로서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연출가로써 답답한 점이 있죠. 그래서 막장요소를 피해보려고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오진석 피디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고민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한 답인 것 같습니다. 막장드라마가 저질 취급을 받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열 명중 4~5명이 그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통쾌함을 느낀다고 하니 드라마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청률이 낮지만 영상이 훌륭한 드라마의 경우 단지 시청률만으로 좋지 않은 드라마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항상 스스로한테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연출한 작품은 3개 정도 되지만 10개 정도 제작하고 나면 '좋은 드라마'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웃음)

**'모던파머'의 네 명의 주인공은 좌절을 겪고 있는 20대 청춘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20대 청춘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현실의 구조가 답답하며 이러한 구조가 쉽게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20대 청춘들에게 지금 답답한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들도 현재 시대에 맞는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해요. 과거에는 공중파 피디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문화적인 권력이 보장되어 시청률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30~40%의 시청률인 드라마가 없어진

대신에 '마니아층'이 생겨나면서 제작 품을 사랑하는 대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저도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행복의 기준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가다가 포기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입니다. 가다가 멈춰도 간 것만큼은 이득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 시간에 일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20대 청춘들도 변화된 이 사회 속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신데렐라처럼 반드시 성공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보다 일상 그대로의 스토리를 연출하며 그 속에 녹아들어 대중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고 싶은 연출가가 되고 싶다는 오 피디. 오 기자는 그런 오 피디의 작품 '모던파머'를 정주행 중이다.

오진석 기자 dhgwls0424@hansung.ac.kr



## 이제 만나러 갑니다

### 무로하라 쿠미 “난 쿠미(꿈이) 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쿠미씨의 모습(위)



▲경상남도 진주 유학시절 극단 길놀이 공연을 하는 모습(아래)

한국어가 서툴러 '거위의 꿈' 가사를 "난 꿈이 있어요"라고 발음해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흥얼거리는 등 한국에 완벽 적응한 그녀, 무로하라 쿠미.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한류스타도 K-POP도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인 풍물 때문이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일본에서 한국 예술단체인 큰들문화예술센터의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풍물을 배우고 싶어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그 단체에서 2년 동안 활동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배우게 되었죠. 또한, 아버지가 활동하고 계시는 일본예술단체와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을 도맡아 하면서 한국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잦은 통번역으로 인해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죠.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당시 가장 충격적인 문화가 있었나요?**

음식이요. 음식이 일본보다 훨씬 다양해서 놀랐어요. 특히 한국음식은 아껴서 먹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마늘종이나 고추잎은 음식

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용해 썰어지므로 먹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음식재료를 버리는 것 없이 아껴서 먹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 오면서부터 계피나 젓갈 등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외국어 실력이 우수해지기 위해서는 연애가 필수라고 하던데...**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만으로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통번역 때 문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온지 3개월 만에 통역을 시작했어요. 듣기실력은 좋았지만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서툴렀어요. 그렇지만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2년 동안 10번 이상 통역을 하고 동시에 간단한 편지나 전달 사항 등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더 빠르게 늘지 않았을까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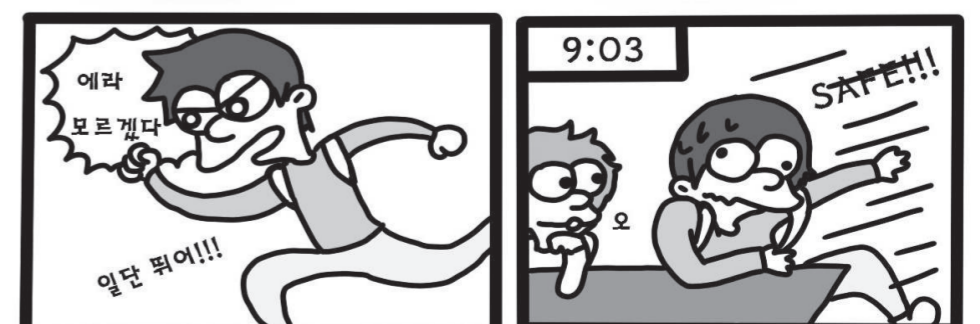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은 어떤가요?**

한국어문학부 OT를 딱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도 잘 모르니 함께 즐기지는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쌓는 것을 어색해하는 성격 때문

우리 일상에서 항상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대 2)



출석번호가 뒤라서 다행이다 다음엔 일찍와야지... 휴

오진석 기자 dhgwls0424@hansung.ac.kr

◆ 학술 기획연재

# 부재와 억압의 역사

<연재 예고> 부재와 억압, 연재를 시작하며

-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
- 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 했나
- 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 ④ 종교의 억압 -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 ⑤ 묶여버린 펜, 빼앗긴 권리, 언론의 억압

## 부재와 억압, 연재를 시작하며

<부재와 억압의 역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에 초점을 맞춘 학술 기획연재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부재와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재와 억압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획연재의 첫 번째 주제는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이다. 광복 이후에 친일파 청산이 될 것이라는 사회분위기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청산 의지가 억압된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 청산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취재하였다.

##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모습이다.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 말 자체는 상당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엉뚱한 얘기는 아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사회 각 분야를 주름잡으며 호화롭게 살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 유족 대부분은 비참하게 살기 때문이다.

###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친일파 청산

일제의 통치 특징은 동화와 민족말살을 목표로 한 민족적 차별과 억압, 사상 통제와 인권탄압, 경제적 수탈이다. 이 시기에 일본에 발붙여 민족반역행위를 한 사람들을 친일반민족 행위자, 친일부역자, 매국노를 통칭해 일명 친일파라고 불린다. 이들의 세력은 관계, 정계, 재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경찰, 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친일파들은 공개적으로 수많은 친일행위의 근거를 남겼다. 이들의 행위는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행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노골적이 많았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그동안 탄압받던 민중들의 요구였고 무엇보다 풀어야 할 민족적 과제였다. 하지만 그 과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친일파 청산의 좌절이라는 말이 나왔다. 인적으로, 물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청산되지 않았을 뿐더러 잘된 점도 계승되지 않았다.

### 행하기도 전에 꺾어진 반민특위

해방직후 식민통치의 잔재와 친일 세력은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이었다. 사회분위기 또한 친일파의 청산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그려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과 기대감이 깔려있었다.

거센 사회적 요구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특별법(이하 반민법) 제정

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탄생되도록 했다. 반민법은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를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친일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반민특위 주도세력의 힘이 강하거나 정권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의 방해 연막작전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급격하게 줄었고 결국 해체에 이르렀다.

### 그 시대, 돌아오지 않았던 청산의 메이리어

반민법과 반민특위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탄생했지만 당시 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반민특위의 주도세력은 소수에 불과해 반대세력을 제압할 힘을 지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반민특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달랐고 조사활동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악명 높은 일부 친일파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나마도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의 방해 연막이 본격화 된 이후에는 조사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당시 정권을 붙잡고 있던 이승만 세력의 기반은 친일세력이었다. 미군정기부터 친일세력은 반공을 외치며 애국자 행세를 하기 시작해 다시 득세하였고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기반으로서 권력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해체공작을 위해 집요한 연막작전을 펼쳤고 대중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해 친일청산운동을 반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은 혼탁한 정국 속에서 친일청산

의 대의명분까지 약화시키면서 상당수의 대중들을 이탈하게 만들었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위축돼 해체에 이르렀다.

### 오늘날 청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2000년대에 들어서 친일청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 두드러진 활동은 『친일인명사전』의 편찬과 반민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세력의 해방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장기간에 걸친 독재 기간 동안 친일에 걸쳐 활동하고 있었으며,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사전 수록 대상의 기준은 식민통치체제에 복무한 지위에 따른 책임과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했으며, 단죄의 측면보다는 역사적, 도의적 평가가 중점이다.

또한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행위를 파악하고 재단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철저한 증거주의가 원칙이다.

반민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 확인 나아가 사회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에 의거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이는 반민특위와 해된 지 60여 년 만에 정부가 직접 친일청산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이었다. 반민특위와 반민위원회의 차이점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 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 등 공문서에 게재하는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명예회라 할 수 있다.

### 해결책은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

앞서 언급했다시피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된 현 시점은 재판을 받을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사망한 시점이기에 때문에 인적, 제도적 청산보다는 친일인명사전과 같이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다. 이 시위 주체의 목표는 일본 정부에게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법적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혜정 기자 hipo96@hasung.ac.kr



## 남자가 여자보다 공간지각능력이 뛰어난 이유 : 종족번식을 위해서



설레는 연인과의 데이트 첫 코스는 맛집 탐방이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인지라 곧 헤매기 시작한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는 여자. '여기가 여긴가? 아냐가 여긴가?' 하고 지도를 보면서도 헤매는 여자의 핸드폰을 쭉 보던 남자는 '여기로 가는 거야하고 늬름한 모습을 보인다. 앞의 예포스드처럼 실제로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를 잘 읽을까? 미국의 유타 대학이 아프리카의 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공

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남성은 종족번식을 위해 파트너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보다 멀리까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유전자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특정 지역부터 130km의 9개의 장소를 찾아가는 테스트 공간지각능력 테스트 등이 행해졌다. 모든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남성은 낮은 점수의 남자보다 실제 이동 거리가 길었다. 긴 거리를 이동한 남자는 더 많은 여성을 만나고 아이를 낳았다. 반면 높은 점수의 여성

과 낮은 점수의 여성 사이에 행동 범위의 넓이의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아프리카 부족인 투웨이족과 친바족은 1년에 200km 가까이 이동해야 하고 아내가 아닌 여성과 아이를 만드는 것이 인정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투웨이족 남자의 발달된 공간지각능력은 유전자에 따른 문화 형성일까 아니면 문화에 따른 유전자의 진화일까? 확실한 것은 그들의 능력은 많은 여성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줬다!

최혜정 기자 hipo96@hasung.ac.kr

## 美生 여걸들의 이야기

### 신사임당과 현모양처



사임당은 당호이며, 사임당 외에도 시임당·임사체 라고도 하였다. 사임당이라고 지은 것은 중국 고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로 뛰어난 부덕을 갖추었다는 태인(太任)을 받받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태인은 신사임당의 롤모델(role model)이었다.

신사임당은 7세 때부터 스승 없이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전한다. 세종 때 안견의 <몽유도원도>, <적벽도>, <청산백운도> 등의 산수화를 보면서 모방해 그렸고 특히 풀벌레와 포도를 그리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오늘날 사임당은 율곡 이이를 낳은 어머니로 더 유명하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

우리 역사에서 신사임당(申師任 1504-1551)만큼 존경받은 여성은 드물지 않다. 여성 최초로 5만 원 지폐의 도안 인물이 되었고, 50년이 채 안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녀를 향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5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화자하고 있다. 신사임당은 48세를 일기로 작고할 때까지 훌륭한 작품을 남긴 천재 화가로서, 그리고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의 어머니였던 까닭에 현모양처(賢母良妻)를 상징하는 인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추앙받고 있다.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외가이자 친정인 강릉에서 태어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사임당이 결혼한 것은 1522년인 19세 때로 남편은 이원수라는 사람이었다. 사임당은 이원수와 사이에 셋째 아들인 율곡 이이를 비롯해서 모두 4남 3녀를 낳아 길렀다. 사임당은 38세 때 시집이 있는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20년을 강릉에서 살았다. 친정에 아들이 없어 시집인 서울에 가서 살지 않고 친정인 있는 강릉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강릉에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말동무를 헤드리면서 셋째 아들인 이이가 강릉에서 태어났다.

### 신사임당은 왜 친정인 강릉에서 살았을까?

신사임당은 1504년(연산군 10년) 외가인 강원도 강릉 북평촌(현재 강원시 죽헌동)에서 딸만 5명이 있는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서울 출신인 사임당의 부친 신명화는 고려 태조 때 건국공신인 신승겸의 18세손으로, 벼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한 인물이었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윤씨는 강릉 출신의 양반 여성이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남자 중심의 가족문화가 발달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가족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린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신사임당이 살았던 시기에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외가이자 친정인 강릉에서 태어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사임당이 결혼한 것은 1522년인 19세 때로 남편은 이원수라는 사람이었다. 사임당은 이원수와 사이에 셋째 아들인 율곡 이이를 비롯해서 모두 4남 3녀를 낳아 길렀다. 사임당은 38세 때 시집이 있는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20년을 강릉에서 살았다. 친정에 아들이 없어 시집인 서울에 가서 살지 않고 친정인 있는 강릉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강릉에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말동무를 헤드리면서 셋째 아들인 이이가 강릉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현모양처 이전에 화가였다 신사임당의 본명은 신인선이라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학예사

# "강인한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모진 삶 속에서도  
'민들레'로  
살아가는  
서예가,  
청봉(靑峰) 이흥근



▲대학생에게 강인한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는 글을 쓴 뒤 뜻을 설명하고 있다.

비가 그친 일요일 오후 1시, 인사동 복사사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곳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청봉(靑峰) 이흥근(64) 서예가를 만나볼 수 있었다. 듣던 대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붓글씨를 나눠주고 있었다.

한 대학생이 글씨를 부탁하자 그는 한지를 문진(중이의 움푹입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대신 두 개의 유리 판으로 고정했다. 이흥근 서예가가 사용하는 재료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숨에 '自勝者強(자승자강)을 멋들어지게 써내려갔다. "얼굴을 보니 의지가 부족해. 강인한 의지로 본인을 이겨내려는 뜻에서 썼으니 가져가라"는 말도 곁들였다. 그 모습을 기웃거리던 기자 역시 글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생 기자라고 밝히자 그는 주저 없이 붓을 들었다. 붓을 한 번에 휘둘러 '기'를 쓰고는 양 옆으로 '大河無聲流(대하무성류) 大人無言行(대인무언행)'이라고 썼다.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큰 사람은 말없이 행한다는 뜻이다.



▲ 이흥근 서예가가 한성대신문 창간 500호 기념으로 '正論直筆(정론직필)'을 쓰고 있다. 정론직필은 '정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사실에 구애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글을 쓰려고 한다"는 말에 기자는 글을 받고도 한참 더 그 주변을 맴돌았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열정을 가지고 큰 꿈을 꾸라며 꿈 '夢(몽)'을 써줬다. 연인 사이는 사랑 '愛(애)'를, 부모와 찾아온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惠(혜)'를 받아갔다. 한자가 낯선 서양인도 'love'라는 소리를 알아듣고 '愛(애)'가 크게 쓰인 종이를 웃으며 받아들였다. 어린 아이들은 손에 먹칠을 묻혀 하얀 종이 위에 손도장을 찍었다.

입춘이 지나건만 아직 겨울바람이 세찬 날이었다. 사람들은 적다기도 다시금 물러들길 반복했다. 기자가 잠시 추위를 피하다 온 사이 오후 7시가 넘었다. 해는 진작 저물었는데 여전히 그는 가로등 불 아래서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 좋은 글을 부탁하던 아주머니가 환한 뒤 다시 왔다.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생화차 한 잔이 그의 식사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글 쓰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다. 글을 써달라는 분들에게 제가 더 고맙다"는 이흥근 서예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붓글씨를 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고달픈 삶 속에서 새겨진 상처와 한도 많았다. 그는 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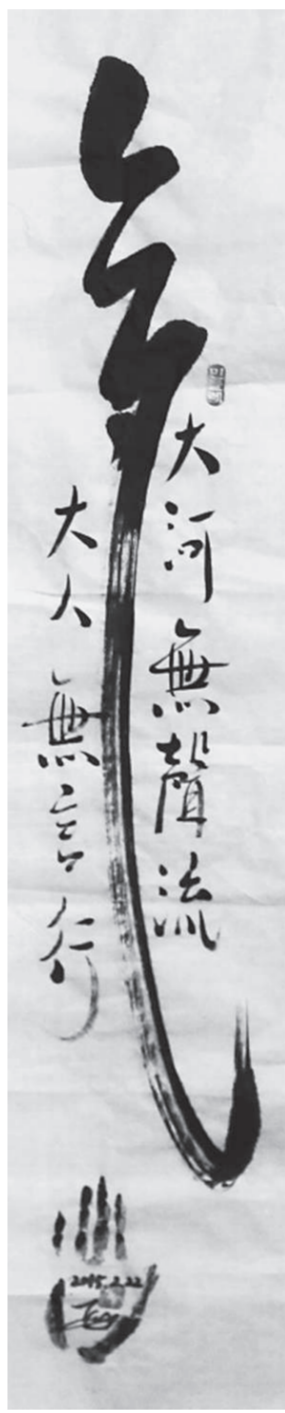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었다. 불편한 다리보다 더 아픈 일도 있었다. 1999년 어머니의 실수로 얼굴에 화상까지 입은 것이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서울 인사동에 자리 잡기 까지도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열정으로 재능 나눔을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힘들고 상처가 많은 삶이었죠. 그저 가진 거라면 열정과 노력 하나였습니다."

이흥근 서예가는 2007년부터 무료로 붓글씨 작품을 시작했다. 매주 주말과 휴일 오후 1시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글씨를 쓰는데 하루에 나눠주는 글씨가 200~400장이 넘는다. 3년 동안은 무료로 고집했지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글씨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건네는 성의를 받고 있다. 독학으로 서예를 터득한 그는 서예가들도 알아주는 실력자로, 후원을 받아 2011년, 2012년 두 번의 개인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올 4월에도 개인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이흥근 서예가는 청봉(靑峰)이라는 호가 있지만 '민들레'라고 적힌 낙관을 더 자주 사용한다. "민들레는 짓밟혀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향기도 진하다"며 자신만의 체를 '민들레체'라고 이름을 붙였다. 모진 삶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따뜻한 철학을 놓지 않은 것이다.

바람이 불고 민들레 흩날리는 날이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살아남는다. 그도 살아 가면서 힘들고 약해지는 마음을 붙잡았다. 오늘날 그는 길에서 피어나는 민들레로 살아간다. 그가 사람들과 만나는 인사동 거리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찾아오고 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BACKSTAGE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배우, 극본, 연출가들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극을 소개한다.

# 연극 <배고파4>

로맨틱 코미디 힐링 연극 / 극본, 기획, 총예술감독 김민영 / 연출, 무대, 조명 이양우 / 극단 불꽃

### (시놉시스)

가난과 배고픔에 지친 시인지방생 정자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를 남기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자살방지1호 형사 존나손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난자에게 한눈에 반하고 삶의 이유를 찾아간다... 늘 사랑에 배신을 느낀 난자는 정자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돌만의 사랑을 키워 가는데 또 다시 이 돌의 사랑에 고비가 찾아온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빵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존나손은 늘 빵을 사러온다. 매일 찾아오는 존나손에게 할머니는 끊임없이 무한 애정을 보인다. 하지만 존나손은 할머니를 떨쳐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경악할 만한 방법을 쓰고 만다...

##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배가 고프신가요?"

연극의 중심지인 대학로는 번안극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안극은 외국의 희곡을 자기 나라에 맞게 고쳐 공연하는 연극을 말한다. 이런 연극계 범람하는 번안극속에서도 국내 순수 창작물로서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는 극단 불꽃이 있다. 극단 불꽃의 <배고파 시리즈>는 순수창작극으로 2007년에 공연을 시작한 뒤로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았다. 현재는 대학로 연진아트홀에서 <배고파4> 이 오픈런으로 공연하고 있다.

연극 <배고파4>의 연출을 맡고 있는 이양우씨는 "번안극의 경우 메시지가 다소 약하고 우리의 정서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자극적인 내용은 없지만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배고파4>가 인물들은 딱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인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배고파4>의 연출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다. 배우 지방생이던 대학시절 우연히 <배고파4>를 관람한 그는 '이 작품에 도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졸업 후 다른 작품 활동을 하다 오디션을 통해 극단

불꽃에 들어오게 됐다. "사실 첫 미팅 당시에는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고 있었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꿈에 그리던 극단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배우 겸 연출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그는 김민영 감독의 연출 제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연극 <배고파4>는 배고파서 자살을 시도한 가난한 시인 지방생 정자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난자. 자칭 자살방지 형사 존나손.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난자의 할머니의 우여곡절 사랑 이야기이다. 주인공들은 각자의 아픔과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겪는다.

<배고파4>는 극중에 관객들에게 건빵을 나눠주는 연극으로도 유명하다. 이양우 연출가는 "빵은 누구나 얻기 쉬운 것이지만, 그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은 적다. 빵이라는 매개체로 사랑을 향한 나눔을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빵을 받은 관객 역시 배고픈 존재이다. 그리고 극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쯤엔 관객들의 '배고픈' 역시 채워진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 Q1. 학술) 21세기 친일청산운동 중 친일세력의 해방이후 행적이 수록된 사건은?
- Q2. 사람) 드라마 '모던파머'와 '결혼의 여신'을 연출한 PD는 누구일까요?

### ·추첨방법·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연극 '배고파4' 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국민브랜드 배고파 네번째 이야기

http://www.iflame.co.kr

# 배고파

[로맨틱코미디 . 연극 배고파 4탄]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배가 고프신가요?  
사랑을 원한다면... 배고파 해봐! 솔직히 사랑에 배고프잖아?



2015년 06월 19일 ~ Open Run

공연장소 대학로 연진아트홀 (해마역 2번출구, 낙산공원 가번길)

평일(화~금) 5시, 7시 30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시, 4시, 6시

제작-극단불꽃 | 극본-기획-총예술감독-김민영 | 연출-무대-조명-이양우 | 의상-분장-소품-마케팅-극단 불꽃

공연문의 : 010-6877-1912 / 010-6698-1912 | 배고파시리즈는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각각 다른 작품입니다.

## Gamesave

성공한 게임들은 대부분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만든 게임이 많다는 사실! 'Gamesave'는 게임, 그리고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칼럼이다.

## 두 대학생의 '저항'과 '혁신'으로 만든 리그오브레전드

### "교내 농구대회는 괜찮은데, 왜 스타리그는 안 된다는 거죠?"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는 한국의 국민게임이다. 과거 3040세대가 스타크래프트에 빠졌다면, 요즘 1020세대는 롤에 열광한다. 고환인 미국을 제패하고, 거대시장 중국에서도 흥행 1위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월드컵 이상의 흥분을 안긴다.



의 목표는 명확했다.

게임을 스포츠로 인정받게 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e스포츠에 어울리는 게임을 만들어야 했다. 당시 e스포츠 시장을 이끌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였다. 스타와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선 승산이 없었다. 때마침 인디게임 개발자 '스티브 픽'이 회사에 합류했다. '구인수'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그는 워크래프트3 지도편집기로 '도타'라는 게임을 만들어 히트 쳤다. 그는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제작단계를 뛰어넘었다. 비싼 제작비를 쓴

아트는 대신,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으로 제작했다. 캐릭터 디자인 하나하나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했다.

2008년, 라이엇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 운명의 충돌'을 내놓았다. 롤은 여러모로 스타와 달랐다. 스타는 부대전제를 컨트롤 하지만, 롤은 캐릭터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스타가 감독 입장이라면, 롤은 선수입장이다. 스타는 경쟁하는 방식이지만, 롤은 협동이 우선이다. 롤은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스타' 이후 침체된 e스포츠 시장을 키웠다. 한국, 중국, 동남아, 유럽까지 게임에 열광했다. 전 세계 145개국에서 매일 7천만 명이 플레이하는 초대박 게임으로 성장했다.

급기야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장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당당히 월드컵 결승전을 치렀다. '스포츠가 아니다'는 이유로 교내 게임대회를 거부당한지 15년 만의 일이다. 라이엇게임즈는 '우리는 관습에 저항한다'를 개발이념으로 삼는다. 그만큼 시대의 고정관념과 싸웠다. 리그오브레전드는 두 젊은이의 '저항'과 '혁신'으로 창조된 최고의 흥행작이다.

이덕규 게임어비웃 편집장

# 펜은 칼보다 강하다

##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지 **시사IN** 제6회 대학기자상 특별상 수상



한재원 행정12  
편집국장

한지선 패디14  
취재부장

최혜정 의패14  
학술부장

오혜진 한국어문14  
학술부 기자

노유진 경영14  
사회부장

임태미 시각영상14  
문화부장

## 제40기 수습기자 모집

- 지원자격** 15학번 새내기 누구나
- 모집분야** 취재/학술/사회/문화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활동기간** 입사 후 4학기
- 기자혜택**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임기완료 후 기자인증서 발급
- 선발전형** 1차전형-입사지원서 작성(온라인 지원 혹은 신문사 방문)  
2차전형-서류심사 후 면접
- 문의사항**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한성대 신문 02-760-4186
- 신문사위치**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